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5월 17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시 33:10-19, 롬 13:1-7

제목 : 창조주 하나님 · 위탁받은 인생(3)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③: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말씀 :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
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라” (롬13:1)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4

일 오후 2시에 접한 외신보도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보도를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도 <마하르슈트라 주, 나시크>에 살던 여자 <샤쿠타라>에 관한 보도입니다. 그 남편은 이주 노동자인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동 중단으로 일터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생계가 곤란해지자 <샤쿠타라>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25일 코로나19 확산을 지연시키고자 인도정부가 국가 봉쇄령을 내린 상태여서 고향까지 갈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약 100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 다시 천안 까지 가는 거리정도 됩니다.

걸어서 이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더구나 샤쿠타라는 임신 9개월이 된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1000km나 멀리 있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지난 5일, 약 7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고속도로 길가에서 산기를 느끼고 진통 끝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1시간 만에 몸도 추수릴 겨를도 없이 남은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산모가 힘들었을까요? 또 아기는 어땠을까요? 왜 삶은 이들에게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그렇게 160km를 4일 동안 더 걸어서 지난 9일 <마디아프라데시 주> 경계면에 도착했고 그의 가족은 한 마을 도로 검문소에서 경찰에 발견된 후 여성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의 보호시설 수용 및 치료를 주선한 검문소 책임자는 “이 가족은 돈도 없었고 두 다리 외에 어떤 교통수단도 없었다. 아무도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성을 태워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놀란 현지 경찰은 샤쿠타라의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향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샤쿠타라의 남편은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물품 등을 주며 도움을 줬다”고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19는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엄마가 손주를 통해서 할머니가 직장인을 통해서 동료가 전염을 시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의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못된 사탄의 본성을 가진 앞잡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악하고 추한 더러운 바이러스야 물러갈지이다.” 라고 꾸짖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생명에 대한 집착과 모성애의 사랑에 대한 숭고함입니다. 길가에서 아기를 낳고 1시간만 몸을 추 수린 후 그 몸으로 거의 4일간 걸었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입니까? 낳은 딸을 지켜야 한다는 사랑의 집착이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숙연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백성들은 좋은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잘 사는 국가이면 교통수단도 많이 있어서 이 산모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전폭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잘 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즉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위탁을 잘 수행하도록 교회 가정 국가 그리고 노동 (자연포함)을 인간에게 제도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국가를 세우신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국민들로 구성되고,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진 집단.”입니다. 국민들로 인하여 구성이 되기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어떠한 욕구와 필요를 갖고 있습니까? 우선 안전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나라 국(國)자를 풀이하면 사방의 땅을 창을 가진 군인들이 발로 지키는 모습입니다. 백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한자어 가(家)는 지

붕 아래 있는 돼지 축사입니다. 돼지는 경제적인 복의 상징입니다. 인간과 늘 가까이 있어 왔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국가는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롬13:4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가와 위정자들을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롬13:6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국가와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경제적인 복지의 추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말합니다. 딤후2:2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모든 국가의 존재 목적은 그 땅에 속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이런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더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우선 지켜야 할 질서는 국가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롬13:1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위정자들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폭군이 안 됩니다. 독재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정자로 세우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됩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세계적인 잡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1천 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발표한 결과 한 세기 동안 뛰어났던 지도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누구인지 궁금하시지요?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입니다.

왕으로 뽑혔을 당시 25세의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생모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대신들의 가장 무력한 왕을 뽑고자 하는 간계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자베스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 1세가 치세했던 45년 동안, 섬나라인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 바뀌었으며, 세계 제일의 젠틀맨 나라가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복 후 프로리다 옆 북부를 버지니아 (처녀)로 불렀고 개신교가 영국이 국교가 된 때도 이여왕 때입니다.

엘리자베스1세는 주옥같은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통치했는지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의회에서 한 황금 연설로 알려진 여왕의 말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알게 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나보다 국민들을 더 사랑한 왕은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임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일은 모두 다 그대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왕이 되고 왕관을 쓴다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겉에서 보기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왕이나 여왕의 권위와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용해 유혹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하느님이 믿음과 영광을 이루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지금보다 더 나라를 걱정하고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 까요? 1596년 63살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써 놓은 기도문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내려 주신 수많은 자비하심과 또 저를 창조하시고 지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주신 모든 당신의 은혜와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뜨거운 감사를 드리나이다."

시33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라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국방정책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시33:12은 말합니다. "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리십니까? 시 33: 16-19을 같이 읽겠습니다.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 하는 도다.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 하는 도다. 18.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 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는 우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이 질서를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질서 3가지를 말합니다.

우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딤후 2:1-3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1절을 보면 아마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중보기도를 했지만 위정자(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들 그리고 분봉 왕들을 말함)들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위정자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단정함으로>는 <거룩하게>란 의미입니다. <고요하고>는 <외적인 방해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평안하고>는 <내적인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요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공산 주의국가가 되면 예배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적에게 침략을 당하면 고용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포로생활에 끌려가도 그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렘29:7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또한 디모데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의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정부제도)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롬13:1에서 말합니다.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곳에서 권세는 여성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기구인 정부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의 권세와 정부의 권세(시스템)이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법질서를 잘 지키면서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법질서를 안 지키면 처벌을 받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지 말라, 고 했습니다. 오히려 양심에 따라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예컨

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음주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누가 보든 안보든 그 법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정부 관리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나라의 질서가 잡힙니까? 무질서 혼돈입니다. 그것은 마귀 적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무를 잘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서 백성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국가라는 제도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잘 보호받으면서 경제적인 복지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하게 위함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국가가 잘 못 감당하면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국가에게 맡기신 위탁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국가에게 주신 위탁을 잘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감당하면 됩니다. 우선 왕(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위정자들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주인임을 알고 겸손히 섬기면서 백성들이 평안히 보호받으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통치자가 되도록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와 정부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그 제도(시스템)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특히 나라의 법질서를 양심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국가에게 맡겨진 위탁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감당하는 국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 33:12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